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의 원리와 발전방향

김대희* · 김재기* · 김성수**

*순천대 사범대

**서울대 농생대

The Principles and Improvemental Directions of the Environment-friendly Rural Development Plan

Dae Hee Kim*, Jae Ki Kim* and Sung Soo Kim**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Recently, the community developmental enthusiasm is activated and emerged with the varied developmental plans since the localization was implemented in Korea. But the anxious view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has been gradually heightened in the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al(ESSD).

The local autonomy should listen to the public opinions because the people's anti-developmental movement could obstruct the development project in the community level. The Environment-friendly Rural Development Plan(EFRDP) pursues the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of the community at the same time. Therefore EFRDP reflects the local developmental intention and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t the step of planning. Throughout the planning process the opinions of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should be adjusted, the people's planning ability can be enhanced, and new creative alternative ideas will come out at times.

I. 서 론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한 많은 연구가 거의 전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의 해결은 보전과 개발의 상충성 해소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의 개발활동에 대한 전면적 검토 및 축소 또는 개발방향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의 개발활동은 어떻게 하면 환경보전과 상보성을 찾을 것인가 하는 즉,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개발(ESSD)"를 요구하는 것이다(이정전, 1995:262-277).

최근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 출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농촌개발계획이 활기를 띄고 있다. 지역개발정책으로 농촌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거나, 관광 위탁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농촌개발계획은 그 동안 낙후되었던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부족한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기구에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재춘, 1995: 301-302).

그러나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노력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환경파괴적 개발활동을 답습한다면, 이는 오히려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농촌지역의 환경적 혜택마저 소실시키는 악재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까지 농촌지역이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농촌지역은 경제발전 혜택의 소외지로서 사회간접자본이라는 하부시설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으로써 문화적 및 정주공간적 차원에서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이동필, 1995:112).

그리고 최근 들어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재원의 확충과 농촌 공동화(空洞化) 대책의 차원에서 농촌에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 3차 산업의 육성으로 농촌의 산업구조 및 공간구조의 변화가 점차 가속화될 시점이다(이상문, 1995:45). 따라서 이러한 개발의 움직임이 환경악화와 농촌의 정주생활권 악화로 이어지지 않고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농촌계획의 수립이 행정절차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완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농촌개발계획은 낙후된 지역여건의 개선이라는 개발적 측면과 상대적으로 깨끗한 지역환경의 유지라는 보전적 측면이 결합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유지되는 농촌개발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 도시화의 문제점과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적 역할

국가개발목표를 산업화와 개발에 두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도시화는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구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97년 현재 약 8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선진국들보다 높은 편이다(정재춘, 1995:301; 이무춘, 1995:414).

이러한 도시화는 그 동안 발전의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투자의 효율가치적 측면에서, 그리고 많은 도시인의 세금이 도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측면에서 투자에 재투자자인 과잉도시화를 낳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과잉도시화란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권의 확보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되는 노력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주요 대도시는 이미 환경적으로 녹색경관의 상실과 환경오염물질의 집중화로 지역자체의 수용능력(정화능력)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우리 나라의 주요 대도시는 최근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구축을 위한 개발계획에서 많은 문제점과 예산 낭비적 측면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무춘, 1995:416-419).

또한 이러한 개발의 흐름속에서 새로운 투자 우선순위로 지목되어 개발된 대도시 주변의 많은 위성도시도 대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도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흐름속에서 농촌지역 또한 이러한 도시화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을 하기에는 농촌지역이 지니고 있는 환경보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적 측면은 학문적·사회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인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환경주의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증가되고 있다(이정전, 1995:266-270).

이에는 우선적으로 식량의 생산·공급적 역할측면에서 그 동안 우리 농촌이 쌀의 자급자족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이에 더하여 도시화 및 공업화의 인력공급처가 되어 왔다. 그러나 고도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은 '60년대 30~40%, '70년대 20~30%, '80년대 10~20, 그리고 '90년대 5~10% 수준으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으며, 또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농산물의 수입개방 및 농촌 인구의 도시유출 심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쌀값 하락 등으로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안정적 식량생산기로서로서의 역할이 많이 약화되었고, 정주공간으로서 유지가 어려운 농촌 공동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이동필, 1995:112).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은 수려한 경관과 많은 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 자체가 녹지공간을 활용한 1차 산업으로서 이러한 녹지공간이 제공하는 환경정화력은 매우 크다. 녹지공간은 생태순환의 연결고리로서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정화 및 오염수준의 감축, 지구온난화 방지, 수자원의 확보 및 홍수 조절 기능, 다양한 동식물 유전자원의 보고 및 서식처 등 인류 및 동식물의 지속성 유지의 근간이 된다(허신행, 1993; 오호성 외, 1993).

마지막으로 정신적 측면에서 농촌은 전통사회로서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치유한다. 급속한 도시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도시유출로 우리 나라의 농촌은 그 특유의 경관적 측면과 함께 도시인들의 고향으로서 뜻뜻한 인정이 남아있는 마음의 안식처이다. 이는 도시산업사회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쌓인 피로를 풀고,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레크레이션 활동의 다양화와 활성화로 많은 녹지공간과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촌이 새로운 휴식공간으로서, 그리고 문화공간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최수명, 1995:9-12; 이정재, 1995:17).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농촌지역의 환경적 측면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 낚시 등으로 농촌지역을 이용하면서도 그 소중함을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고, 농업은 증산 위주의 집단화 및 화학농업 등으로 환경보전적 측면도 약화되었으며, 오히려 농촌지역의 새로운 환경오염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이 지니고 있는 환경보전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환경보전적인 농촌개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Ⅲ.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의 원리

바람직한 농촌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농촌계획의 대상은 농촌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체계 즉, 인적, 물적, 지리적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연계된 체계(system)로서의 농촌지역사회이다(최수명, 1995:11). 그러므로 실제 농촌지역사회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활동과 환경보전적 활동이 모두 농촌계획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촌지역사회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전적 활동계획으로서의 농촌계획에는 개발적 측면과 환경보전적 측면이 동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단지 지금까지 많은 농촌계획이 개발우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적 측면의 고려가 부족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개발의 이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온 한편 이와는 반대로 수질 및 녹지보전 등의 이유로 농촌의 발전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이익적 측면의 강조와 발전의 제한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촌계획의 부재가 그 동안 농촌의 많은 문제점을 낳는 계기가 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개발적 측면과 발전제한적 측면의 논리의 바탕은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이 아니라 투자의 효용가치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개발대상에서의 소외와 기타 많은 사람들의 이익(녹지보전과 수질보전 등 전체 국민의 환경권과 위생을 위한 개발제한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촌주민들의 생활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UR협상의 타결 등 개방화에 따른 농촌의 산업구조 조정 필요성과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은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농촌주민들의 개발욕구를 등에 업고 산업단지 및공단조성 등을 통한 공장유치 노력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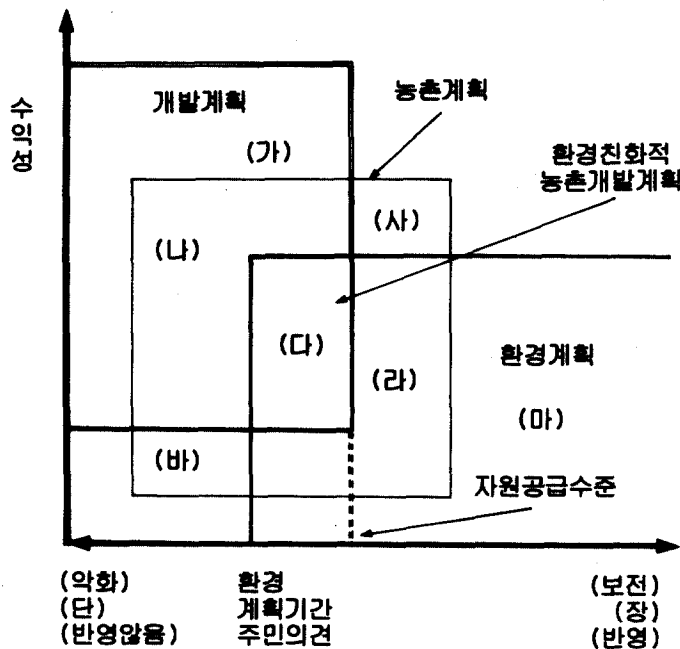
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개발이 지역주민들의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발 욕구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결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 동안 지역 유지 및 발전의 근간이 되는 환경적 측면의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이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자연과 조화로운 인간 정주공간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개발적 측면의 합리적인 개발계획과 지속성 및 환경보전적 측면의 환경계획이 적절히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그 동안의 개발계획에 환경적 측면의 고려 즉, 환경계획이 첨가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사람들의 환경적 인식의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을 계획에 어떻게 참여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홍시환 외, 1996:89, 107-115). 또한 지속적

발전과 지속적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환경계획이란 지역사회경제적 활력의 회복 및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다(Sargent et al., 1991:3,5).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계획 및 환경계획의 접근원리 및 농촌계획의 이론적 체계를 모형화하면(그림 1)과 같다.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발활동은 농촌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며, 농촌계획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개발은 환경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공사기간의 단축과 투자의 효용가치인 수익성이 우선되어 온 것이다(그림의 (가)와 (나) 부분). 그리고 최근에 지구 환경위기의 극복을 위한 생태환경주의적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환경계획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 독일, 영



<그림 1>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의 이론적 모형

국, 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일부(서울, 수원 등)에서 그 동안 개발의 과정에서 파괴되고 악화된 환경을 다시 생태적으로 복원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그림의 (다), (라), (마) 부분)(양병이, 1995:54-57; 이희철, 1995:74-79). 나머지 (바)와 (사) 부분은 투자의 수익성이 낮아서 개발계획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농촌지역의 지역적 여건(인적·물적 자원 및 환경적 제한 등)을 초과하는 분야의 농촌계획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다) 부분)이란 개발을 원하는 개발주체(투자가, 지역주민, 지방자치행정부 등)가 공사기간 및 수익성 등에서 투자의욕이 있는 가운데, 지역의 환경보전이 달성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개발의 수익적 측면의 많은 부분이 환경적 측면으로 이전됨을 의미한다.

IV.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의 발전방향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발잠재력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상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기능이나 역할, 발전방향을 고려하는 한편, 부존자원이나 성장잠재력, 또는 제약요인 등을 포함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개발의사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농촌개발계획이 지역의 주체성 확립이나 경제적 자립, 주민들의 생활이나 문화적 여건향상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선택이나 추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련제도의 개선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이동필, 1995a:29; McMichael, 1996:249-258). 또한 이러한 농촌개발계획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촌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보전적 측면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계획을 지방자치시대에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발전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환경적 측면의 지원과 권력이양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특성에 알맞은 농촌개발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정부 수준에서 지리정보체계(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등을 이용한 지역의 환경적 수용력의 파악과 이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산업의 유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과 재원의 이양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이동필, 1995b:116-120; 이상문, 1995:45).

둘째, 기업체 및 도시인 등 개발주체들의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적 측면의 역할 강화를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적 역할로 인한 혜택의 많은 부분을 도시인들이 받고 있으며, 또한 환경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오염기여도가 높은 산업시설들을 다루는 기업체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이 유지되는 가운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체와 도시인들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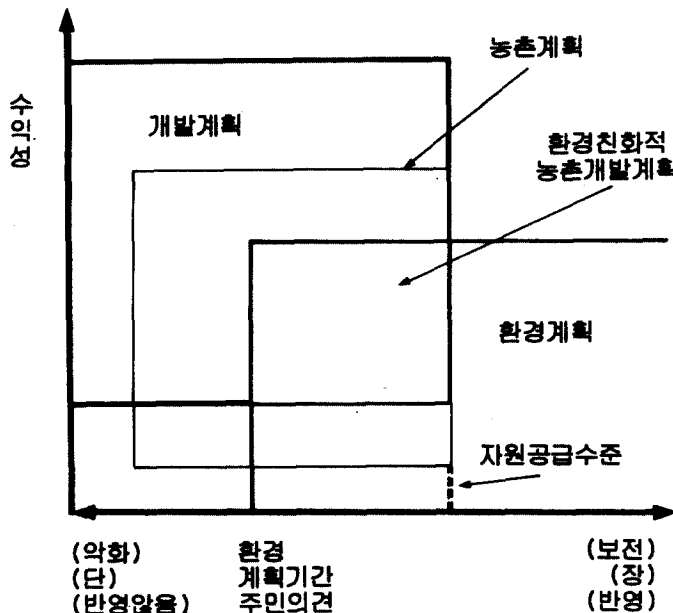
셋째, 농촌계획의 수립시 환경적 측면과 개발적 측면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환경법적 차원에서도 환경피해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확대(환경운동단체의 소송권), 위협책임의 원칙(사전배려 또는 예방의 원칙),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환경자체의 보호 등의 비중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전광석, 1996:99, 125-133, 190-193). 그리고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으로 용역을 맡은 대행기관의 전문인력 부족과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능력 부족 및 주민들의 참여제한 등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환

경영향평가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구자진, 1995:61; 한상욱, 1995:79; 홍시환 외, 1996:209-210). 따라서 농촌계획의 수립시 사업계획서(개발적 측면)에는 환경기관(전문가 및 공식적 운동단체)의 의견(환경적 측면)이 첨부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지방행정부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엄격한 사정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그리고 사업수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정보의 공개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정지용, 1995:31-33; 홍시환 외, 1996:169-176; 한동환, 1995:68-71).

넷째, 발전에 대한 인식과 지표의 재정립,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미래의 농촌사회에 대한 청사진이 요구된다(이동필, 1995b:120). 인간이 추구하는 발전과 욕구는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미래의 발전상에 대한 지표의 선정(과정)과 청사진(목표)에 대한 계속적인 조정과정이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

획의 수립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홍시환 외, 1996:173-174). 이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토론과 조직화의 과정속에서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공공적인 목적, 자연자원의 명세화 및 보전계획의 수립, 그리고 지역의 주 산업인 농업 및 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농촌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이 조정·관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때로는 창조적인 대안모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Sargent et al., 1991:6,26-47).

이상의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의 발전방향의 논거를 도식화하면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의 영역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1>의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의 영역보다 확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도시 및 기업부문에서의 기술, 인력 및 자원의 지원으로 농촌지역의 자원 공급력이 확대되며, 계획기관과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전방향은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



<그림 2>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의 영역 확대

역주민의 의견과 환경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가운데 국가의 지원속에서 지방정부 및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리고 농촌-도시 및 농촌-기업이 연계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촌개발사업의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V. 결 론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보전적 측면의 고려는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점차 강제력을 띄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보전적 측면의 고려는 현대사회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이란 기존의 농촌개발계획에서 환경적 측면의 고려만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개발우선주의적이고 인간중심주의적인 패러다임에서 전체 지역사회 즉, 전체 환경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성을 갖는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것이다.

즉,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은 농촌지역의 발전과 유지 및 농촌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환경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환경적 측면의 고려 내지는 기존의 개발방향에 대한 재평가, 즉 환경적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생태계 속에서의 인간의 올바른 지위(ecological niche)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이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인간의 올바른 생태학적 역할(ecological role)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성을 갖고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저마다의 특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생태계의 순환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에서 최고의 지성과 힘을 갖춘 인류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환경친화적 농촌개발계획이며, 이러한 계획하에서 우리의 농촌지역사회도 지속성(발전과 보전의 조화)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VI. 참고 문헌

1. 구자건.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의의와 문제, 환경과 조경 제86호. 1995.
2. 양병이. 친환경적 공간재생으로의 전환, 환경과 조경 제84호. 1995.
3. 오호성 외. 농업과 환경, 농민신문사. 1993.
4. 이동필. 농촌계획과 농업경제학,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ol. 1 No. 1. 1995a.
5. _____. 농촌지역 산업진흥을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의 모색,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ol. 1 No. 1. 1995b.
6. 이무춘. 우리나라의 도시환경, 21세기를 위한 한국환경보고서, 시민환경클럽. 신광문화사. 1995.
7. 이상문. 농촌지역 공간계획체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ol. 1 No. 1. 1995.
8. 이정재. 농촌계획과 농공학,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ol. 1 No. 1. 1995.
9. 이정전.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토지정책 및 주거환경,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1995.
10. 이희철. 외국의 도시개발 사례 및 개발방향의 주요 흐름, 환경과 조경 제84호. 1995.
11. 전광석. 환경권의 공법적 실현.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소화. 1996.
12. 정재춘. 우리나라의 농업과 환경문제. 21세기를 위한 한국환경보고서, 시민환경클럽. 신광문화사. 1995.
13. 정지용. 농촌계획과 지역사회개발학, 환경과 조경 제84호. 1995.
14. 최수명.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과 전망 - 농촌계획의 학제적 접근,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ol. 1 No. 1. 1995.
15. 한상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발전 방안, 환경과 조경 제86호. 1995.
16. 한동환. 대안적 환경영향평가의 모색 - 풍수지리를 중심으로, 환경과 조경 제86호. 1995.
17. 허신행. 신농업-한국농업의 21세기 전략, 김영사. 1993.
18. 홍시환 외(1996). 환경계획학, 신라. 1996.
19. McMichael, Philip.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A Global Perspective, Pine Forge Press. 1996.
20. Sargent, Frederic O., Paul Lusk, Rivera, Jose A., and Maria Varela. Rural Environmental Planning for Sustainable Communities, Washington, D.C.; Island Press. 1991.